

동학개미 숨고르기... 예탁금·거래대금 감소세

2월 예탁금 전월비 2.8% 감소
일평균 거래대금도 28% 줄어
조정장에 일시적 관망세 관측
단기적 증시 변동성 주의해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7.87포인트(0.90%) 내린 3079.75에 마감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82포인트(1.12%) 내린 954.29,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110.4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이달 들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예탁금과 거래대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동학개미의 증시 열기가 식은 것이 아닌 일시적인 관망세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증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코스피의 거래대금과 투자예탁금은 1월 대비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투자예탁금은 66조915억원으로 1월 말(29일) 68조171억원보다 2.83%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약 2조원이 줄었다. 일평균 투자예탁금도 2월 65조5521억원으로 1월(68조9528억원)보다 4.93% 적어졌다.

거래대금도 이달 들어 하락세다. 코

스피에서 거래대금은 지난 18일 18조1412억원으로 지난달 최저치였던 27일 20조1471억원에도 못 미쳤다. 1월 고점을 기록했던 11일(44조3338억원)보다는 59.17% 내린 수치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2월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9893억원으로 1월 일평균 거래대금(26조4778억원) 대비 28.28% 떨어졌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면서 투자 열기는 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월(2월1~19일) 투자자별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개인은 5조2073억원을 순매수했다. 1월(22조3384억원) 순매수액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사자'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도 이달 들어 각각 5조913억원, 2126억원을 순매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투자예탁금과 거래대금이 줄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열풍이 식었다는 방증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투

투자예탁금이 60조원대 중반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거래대금도 올 초 대비 줄어들었으나 지난해보다 많다"며 "개인투자자의 머니 무브(money move)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숨고르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막강했던 개인의 매수 행렬이 주춤한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이 순환적으로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정장에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여러 수급 주체들이 순환적으로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인의 경우 대규모 순매수가 잇따르면서 개인 수급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단기적인 증시 흐름에서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레버리지를 통한 매매 행태가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조정장에서는 낙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염재민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KB증권 소비자 피해 예방 온라인 금융 교육

KB증권이 오는 23일부터 주식 초보자 및 고령자 등을 선정해 주식 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마블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작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는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크게 늘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 및 고령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이번 교육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식 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초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한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NH투자증권 투자정보 설문 조사

NH투자증권이 고객의 니즈와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공을 위해 고객 대상 설문조사 이벤트 '고객님, 투자 정보 무엇이 궁금하소?'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는 NH투자증권 고객이 홈페이지, 홈페이지딩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 가능하다.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활용 경험과 만족도 및 관심있는 투자 대상, 제공받고 싶은 콘텐츠 등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미래에셋대우 선물옵션 온라인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

미래에셋대우는 '다이렉트 국내 선물옵션 온라인 거래수수료 저!저!익!선! 이벤트'와 '다이렉트 마이크로(micro) 해외선물 온라인 거래수수료 \$0.5로 레고! LEGGO 이벤트'를 4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이렉트 국내 선물옵션 온라인 거래수수료 저!저!익!선!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중 다이렉트 국내선물옵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기존 다이렉트 국내선물옵션 계좌 보유 고객 중 지난해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무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계좌 개설 시점부터 3개월간 온라인 거래수수료 할인 혜택(코스피(KOSPI)200 선물 기준 0.00025104%, 국내선물옵션 상품별 이벤트 수수료율 적용 상이)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신청 고객에 한해 1회 이상만 거래해도 올해 9월 말까지 온라인 거래수수료 할인 혜택이 연장되고 선착순 150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염재민 기자

냉연강판 가격 급등... 역대 최대 분기실적 전망

株라쿨라의 종목 포스코강판

경기 회복세로 철강 판매가 상승
전기차 부품 등 신사업 모멘텀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판가에 전이되며 포스코강판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경기회복세로 인해 자동차·건설 등에 사용되는 철강재인 냉연강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다. 역대 최대 분기실적이 전망돼 재평가가 이뤄질 것 이란 전망이다. 전기차량용 부품 공급 등 신사업 모멘텀도 갖췄다는 평가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포스코강판에 대해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 수요회복에 따라 철강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차세대 주력시장인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고마진 신사업부 매출도 본격화돼 주목을 당부한다"고 추천했다.

포스코강판은 표면처리강판 제조 사업을 하는 업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업황 회복세로 향균, 불연강판 등 고급재 강판의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스프레드(제품 가격에서 원료비를 뺀 수치)가 커지고 수율이 개선되며 상반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원재료인 냉연강판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제품 판가 상승으로 인한 스프레드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의 철강 생산량 감소로 올 상반기까지 가격 스프레드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량 확대와 가전사들의 수주량 증가로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영업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부품도 준비했다. 전기차 배터리 무게는 내연기관 엔진의 약 3배(약 600kg)에 달한다.

포스코강판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경량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노려 'AL-HPF'를 개발했

다. 기존에 사용되던 내연기관 배기 계통을 발전시킨 제품이다. 전기차용 배터리팩 커버인 'ALCOSTA'도 개발해 친환경차 부품 시장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 연구원은 "AL-HPF와 ALCOSTA 제품은 현재 국내외 메이저 자동차사들과 공급협의를 진행중"이라며 "ALCOSTA는 해외 업체에 공급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리서치알음은 포스코강판의 올해 매출액이 9805억원, 영업이익이 24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8.1%, 45.3%씩 오른 수치다. 적정주가로는 2만8500원을 제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3월 전국 1.5만가구 입주... 전월비 38%↓ 신한금융투자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올해 3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월 대비 3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4700가구로 2만3786가구가 입주했던 지난달보다 3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상대적으로 많았던 수도권 입주물량이 3월 들어 1만 가구 가량 줄면서 전체 입주물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5598가구로 2월(1만6511가구) 대비 66%가량 감소한다. 서울에서 2개 단지, 경기에서 3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전국 입주물량의 62%인



9102가구가 입주하며 전월대비 25%가량 증가한다. 단지 수 비중도 높다. 3월 총 22개 단지가 입주하는 가운데 이 중 17개 단지가 지방에서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부산, 경북, 경남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확인·추출·보고서 작성 한번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데이터 기반의 조직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데이터 확인, 추출, 보고서 작성이 한번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BI(Business Intelligence)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 분야 선두주자인 '테블로' 도입을 통해 주요 경영 관리 지표에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통합관리는 ▲사용자 별 접근권한 정책 수립 ▲데이터 오너십 관리 체계 마련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관리 정책 수립 ▲데이터 활용 지원 정책 수립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는 인공지능(AI) 분석 환경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올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염재민 기자